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KBS 2TV '마녀의 법정'(왼쪽사진부터)·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어 22일부터 SBS '이판사판'이 방송된다.

사진제공 | 아이윌미디어·iHQ·CT E&C

법정으로 간 드라마...선악 대결의 장이 된 안방극장

‘당신이 잠든 사이에’ ‘마녀의 법정’ 인기 ‘이판사판’ ‘리턴’ ‘미스 함무라비’ 잇따라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에 시청자들 공감 사실과 드라마적 연출의 균형감이 관건

안방극장에서 선(善)과 악(惡)의 대결구도가 계속해서 벌어질 전망이다. 악에 맞서 그에 맞는 처벌을 함으로써 선의 진정한 의미를 구하는 드라마들이 방송을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유독 법정물의

드라마가 눈에 띄고 있다.

법정물의 바통을 이어받은 작품은 22일 방송을 시작하는 SBS 수목드라마 ‘이판사판’이다. 연우진과 박은빈이 주연하는 ‘이판사판’은 오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판사가 된 동생이 엘리트 판사와 함께 부정을 저지르는 악인을 처단하며 정의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동안 주인공이 검사나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것과 달리 판사가 전면에 나서 흥미를 자극한다.

2018년 법정물의 첫 주자는 1월 방송하는 SBS 새 수목드라마 ‘리턴’이다. 고현정이 tvN ‘디어 마이 프렌즈’ 이후 2년 만에 안방 복귀작으로 선택돼 주목받는 ‘리턴’은 경력단절의 ‘장

문련허’ 여변호사와 늦깎이 변호사가 살인사건의 공동 변호를 맡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두 변호사가 사건을 한 껍질씩 벗겨낼 때마다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모습이 쾌감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로써 SBS는 법정드라마 두 편을 연속해서 수목드라마로 편성하게 됐다.

종합편성채널도 장르물 대열에 합류한다.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하는 JTBC ‘미스 함무라비’는 문유석 판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힘을 신는 파격적이고 도 의욕 넘치는 신입 판사의 이야기를 담는다. 고아라가 여주인공으로 출연 제의를 받고 검토

하고 있다. 이밖에 박신양 주연의 ‘동네변호사 조들호2’도 제작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법정 드라마의 붐은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높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12일 “법정물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등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기에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묘사는 실제 피해자들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어 사실과 드라마적 연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합법적 관계로 한 발 다가선 홍상수-김민희

홍상수, 이혼소송 1년 만에 첫 재판기일 확정
법적 절차 마무리 때 김민희와 결혼여부 관심

영화감독 홍상수(57)와 배우 김민희(35)가 ‘합법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부정적인 시선을 잠재우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재판기일이 12월15일로 확정됐다. 홍 감독은 지난해 11월2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관련 송달을 7차례나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홍 감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기일을 확정지었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

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3월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표해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공개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A씨는 홍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밝혀왔다. 때문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혼 재판은 지난 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재판 과정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를 둘러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상당한 노이즈에 휘말릴 두 사람이 재판을 거친 뒤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맞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 모처에서 함께 생활하는 두 사람이 이혼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새로운 출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새로운 작품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9월 세 영화 촬영을 마친 두 사람은 내년 초 베를린 국제영화제 출품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지난해 2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처음 알린 무대다. 김민희는 당시 출품작인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여우주연상까지 받았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2015년 처음 작업한 ‘지금도 맛고 그때는 틀리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호흡을 맞춘 세 영화의 제목은 ‘풀잎들’로 알려졌다. 김민희를 비롯해 권해효, 정진영 등 홍상수 감독과 주로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이 참여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김광석 미스터리’ 법적 공방 2라운드

아내 서해순 씨, 딸 사망 사건 무혐의 결론 무고죄 고소 예고…“의혹은 여전” 반론도

“무고죄 고소” VS “의혹 여전”

가수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을 둘러싼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일단락됐지만, 양측의 갈등은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픈 딸을 방치해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난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는 자신을 고발한 영화 ‘김광석’의 연출자 이상호 씨,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 등을 이르면 이번 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김광석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평역수사대는 서해순 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송치했다.

경찰은 “서해순이 고의로 서연 양을 방치해 숨지게 만든 증거가 없었고, 최선을 다해 딸을 돌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연 양이 감



가수 김광석의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10월12일 경찰에 출석하는 서 씨. 뉴스시스

기 증상을 보인 날부터 사망한 당일까지 서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행적 등을 비취볼 때 방치한 정황과 증거가 없다는 게 수사 결과다.

이에 김광복 씨와 이상호 씨는 “무혐의는 면죄부가 아니고,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며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SNS를 통해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 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포기하지 않고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말 흥행 반전 노리는 한국영화들

지난해 대비 올해 관객 1000만명 감소 ‘꾼’ ‘신과함께’ ‘강철비’ 등 흥행 기대감

올해 1~10월까지 한국영화 관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한국영화가 큰 흥행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외화보다 우위에 섰던 성과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극장가 비수기인 11월 이렇다 할 한국영화 흥행작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같은 불투명한 전망이 더욱 힘을 얻는다. 하지만 이달 말 개봉하는 ‘꾼’을 시작으로 12월 ‘신과함께’ ‘강철비’ 등 기대작이 포진해 있어 기대감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레 그 주역들의 활약에도 시선이 쏠린다. ‘꾼’의 현빈과 유지태, ‘신과함께’의 하정우·차태연 그리고 ‘강철비’의 정우성 등이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영화 관객수는 8881만19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84만 4969명보다 1003만3052명이 줄어들었다. 외화는 9402만4200명으로 868만여 명 늘어나, 한국영화 점유율은 48.7%였다. ‘군함도’ ‘리얼’ ‘대립군’ ‘남한산성’ 등 대작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데 따른 것

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1월 기대작으로 꼽힌 ‘침묵’ ‘미옥’ 등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후 선보일 작품과 그 주역들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달 22일 개봉하는 ‘꾼’의 현빈·유지태를 비롯해 12월 선보이는 ‘신과함께’의 하정우·차태연, ‘강철비’의 정우성 등 흥행 파워를 지닌 주연배우들이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한국영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꾼’은 검사와 사기꾼이 손을 잡고 거대한 사기의 무리를 쫓는 이야기. 특히 사기꾼으로 변신한 현빈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신과함께’는 흥행감독으로 꼽히는 김용화 감독의 신작으로, 하정우와 차태연 등이 나서면서 신선한 소재로도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강철비’는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 연출로, 정우성과 박도원 김갑수 등 묵직한 배우들이 근미래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기상황을 그리면서 또 다른 현실의 이야기를 펼친다.

이들은 그동안 스크린에서 상당한 티켓 파워를 과시해온 주역들. 그런 만큼 대중친화적인 활약으로 겨울 성수기를 앞둔 극장가 장악은 물론 한국영화가 지닌 흥행의 힘을 다시 한 번 쌓아줄 것으로 총무로는 기대하고 있다.

윤여수 전문가 tadada@donga.com

티티마 출신 강세미 결혼 7년 만에 파경

2000년대 활동했던 5인조 걸그룹 티티마 출신 강세미(36)가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세미

이 관계자는 “이혼 사유는 지금도 개인적인 문제로 알지 못한다”며 “초등

학생 아들은 강세미가 키우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도 아들 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세미는 앞서 2002년 티티마가 해체된 후 연예계를 떠났다가 2010년 방송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남편 소씨와도 2010년 SBS ‘자기야’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강세미의 절친이

자 연기자 강혜정과 타블로가 출연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아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강세미는 연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근황은 SNS 등을 통해 꾸준히 공개해왔다. 또 다른 연예인 절친인 공효진이 최근 SNS를 통해 강세미와 찍은 사진을 올려 팬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백슬미 기자

숫자뉴스



KBS 2TV ‘더윌’

42만 건

KBS 2TV 아이돌리부팅 프로젝트 ‘더윌’이 시청자 투표 실시 14시간

만에 기록한 투표건수다. ‘더윌’은 11일 밤 10시부터 티켓몬스터 투표앱에서 유닛조합을 위한 시청자 투표를 시작했고, 낮 12시 42만 건을 넘어섰다. 투표는 12월3일 오전 10시까지 계속된다.

#해시태그 컷



다이어트 성공? 헬썹해진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가 다이어트 성공 소식을 알렸다. 그는 SNS에 “살 빠졌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1장을 공개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는 조금 헬썹해진 모습이다. 또 다이어트로 운동하며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피부도 매끈해 보인다. 팬들도 “미남이다” “파부가 좋아진 듯” 등의 반응으로 그를 응원한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통아 #박명수 #다이어트 #비포애프터 #살빠졌나?

백슬미의 니혼데레비

도쿄올림픽 드라마 론칭 벌써 봄 조성 나선 일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코앞이다. 개막일인 2018년 2월9일까지 90일도 채 남지 않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번의 도전 끝에, 30년 만에 개최하는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지만 열기가 생각만큼 뜨겁지 않다. 이렇기 때문일지 방송사가 나서 각종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파업 중이어서 관련 프로그램 제작이 여의치 않다.

반면 일본은 벌써부터 방송가가 들썩이고 있다. 2020년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1964년 이후 56년 만의 올림픽을 위해 도시 전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사 NHK는 방송을 2년이나 앞두고 새 작품 소식을 최근 발표했다. 2019년에 방송하는 대하드라마 ‘이타텐~도쿄올림픽 이야기~’이다. 이타텐은 잘 뛰는 수호신으로, 현재는 다리가 빠른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드라마는 일본인이 마라톤 종목으로 첫 출전한 1912 스톡홀름올림픽부터 일본의 첫 올림픽인 1964 도쿄올림픽까지 52년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출연자로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타케노우치 유타카, 아야세 하루카 등 인기배우들과 야쿠쇼 코지, 스기모토 텃타 등 연기파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출연자들과 쿠도 칸쿠로 작가 등 제작진도 화려해 현지에서는 이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자연스레 드라마 방영 이듬해부터 본격 시작될 도쿄올림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가 올림픽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캐스팅에 공을 들인 것은 안방부터 대중의 시선을 2020 도쿄올림픽에 맞추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